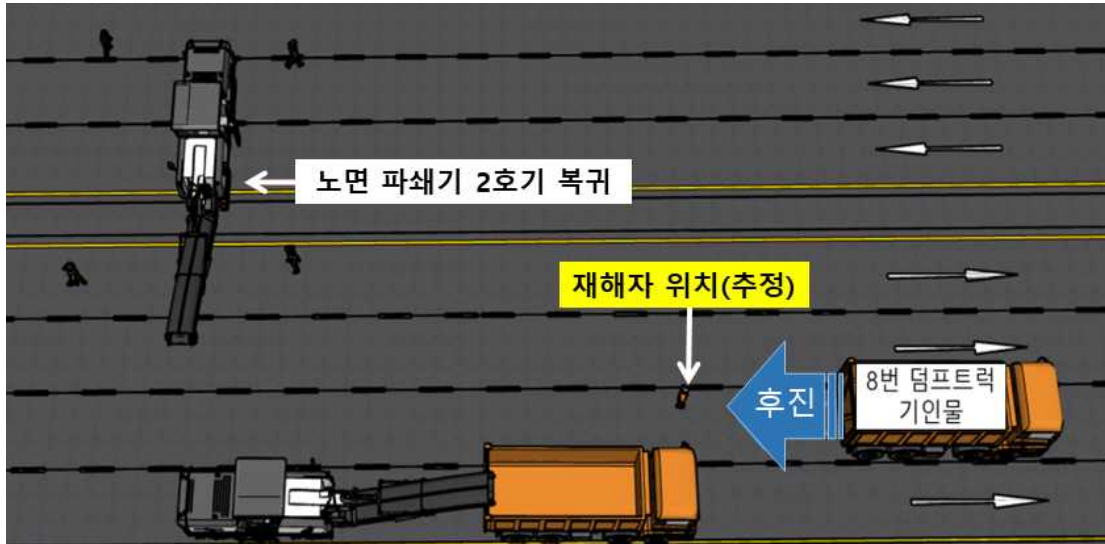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3. 4. 7.(금) 08:00경, 인천광역시 □□구 △△동 소재 「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신호수(장비·차량 유도자) 역할을 하던 재해자가 아스팔트 콘크리트(아스콘) 절삭 후 폐아스콘을 상차하기 위해 파쇄기 쪽으로 후진하는 덤프트럭(25.5ton)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작업계획서 미작성**
 - 분리발주에 따른 혼재된 작업 특성상 소속이 다른 근로자(건설기계 포함)간 작업혼선 및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, 사전에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, 작업계획서 미 작성
- 신호체계에 따른 건설기계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**
 - 차량계 건설기계(덤프트럭 등)가 혼재된 작업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신호하는 대로 따라야 하나, 덤프트럭이 유도자의 신호 없이 노면파쇄기에 후진으로 접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함



재해 예방 대책

-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**
 - 사전 조사를 통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혼재된 작업 특성상 작업혼선 및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속이 다른 근로자(건설기계 포함)간 통합된 작업계획을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공유하여야 함
- 신호체계 구축 및 건설기계 접촉 방지 조치 실시**
 -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건설기계와 접촉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구축하고, 건설기계는 구축된 신호, 유도 등에 의해 운행되도록 조치·실시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